

투데이 칼럼

동학농민혁명의 올바른 계승 위한 국가사업 추진 기대하며

동학농민혁명은 사회개혁과 반침략의 가치를 내걸고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위대한 민중혁명이다.

자주와 평등,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고자 했던 근대 민중운동의 효시로 동학농민혁명은 참여자와 유족, 기념사업 등이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하나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 등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되고 평가절하 되어 왔다.

그로부터 100년의 세월이 흐른 1994년에 학자들과 사회단체, 지자체, 전국각지의 역사적 의의를 되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모여 100주년 기념행사를 치렀고, 다시 10년 후인 2004년 3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당시 희생 됐던 분들의 이름이 비로소 양지의 햇볕을 보게 됐다.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이며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인 고창군에서는 그간 기념사업과 유적지 정비 사업을 전액 군비를 투입하여 송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며 유적지의 보존·관리에 힘써 왔다.

특히, 무장기포지 성역화 사업을 위해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과, 동학농민군 숙영지였던 구)신항초등학교 부지 매입 및 홍보관 운영, 전봉준 장군 생가 복원과 유적지 정비 사업은 물론 매년 학술대회 개최와

정신선양사업, 무장기포 기념일에 개최된 출정식과 무장음성축제 등을 통해 기념하고 있으며, 전봉준 장군 탄신제 행사와 동학농민혁명 스타터 그룹 녹두교실을 운영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해를 돕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무장기포 기념행사 때 수여하는 '녹두대상'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권위 있는 상으로 그 위상과 품격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한 3년 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했던 동학농민혁명 포고문(강령)과 4대 명의(행동목표), 12조기율(행동규칙)에 대해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봄 발기인 대회로부터 시작된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이이화 전 기념재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고문과 추진위원도 추대했고, 박원순 서

울특별시장은 보신각 건너 영풍문고 앞 시유지(종로구 서린동 26-1, 16㎡)를 동상 건립부지로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발 맞춰 고창군에서도 동상 건립에 필요한 성금을 보태기로 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전봉준 장군 출생지인 고창에서도 전봉준 장군 동상을 건립기로 하고 성금 모금을 추진기로 하였다.

그런데 마침 고창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사업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은 일시 접어두고, 2018년 초 전봉준 장군 탄신제를 기하여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 한바 있다.

앞으로 일이 진행되면 우리 고창군민은 물론 서울, 전주, 광주, 부산을 비롯한 출향 인사를 까지도 적극 협력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이다.

이렇듯 동학농민혁명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각계각층의 여론이 모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기념일이 제

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유적지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랜 시간 제자리 걸음을 반복해 오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관련에서도 유성열(국민의당 정읍·고창)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최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념공원 조성사업(88억 88억7000만원)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그간 고창군에서 군비를 투자하여 계획했던 무장기포지 국가문화재 지정, 전봉준 장군 일대 기념 전시관 신축, 동학유적지 전국 순례길 조성사업 또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동학농민혁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열망하며 부당한 권력의 압제와 일제 침략에 맞서 일어난 민중혁명이며 근대 민주화 운동의 시초다.

기념일 제정과 국가직 차원의 기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지속적인 우리 역사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며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담당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진 윤 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사설

아동보호 안전망 관리 철저해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심각하다. 아동에 대한 보호 관리가 보다 철저해야겠다.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도를 넘고 있는 오늘이다. 아동 학대 중에는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밤낮 없는 구타 때문에 신을 하다가 사망에 이른 아이가 있는가 하면, 창밖으로 내던져져 죽임을 당한 아기도 있고, 엄마가 술 취해 낸 불로 인해 질식사 한 어린 아기도 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엄마 아빠에게 온갖 구박과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중에는 드러난 것도 있고 숨겨진 것도 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이 아니어도 모든 아동학대는 그 이유를 불분하고 중범죄이다. 아동학대가 없어져야하는데 우리 사회가 바라는 장래대로 가고 있다. 아동학대가 줄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늘고 있으니 정말 개탄스런 일이다. 정말이지 이런 인간 사회가 아니다. 잔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딸을 죽여 시신을 남몰래 산에다 묻어놓고 아이가 실종됐다고 거짓 신고를 해 수개월간 전국을 뒤집어 놓은 사건 말이다. 그러나 전복철의 과학 수사로 지난 연말에 결국 사실대로 모든 게 드러났다. 바로 그 고준희 양 사망사건을 생각하면 지

금도 저절로 몸서리가 쳐진다. 전주시와 경찰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었는데 만시지탄이다. 사실이지 우리 지역에는 고준희 양 사건 말고라도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부끄러운 전과가 많았다.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왜 남이 나서느냐고 대드는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이웃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속히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 학대는 불행한 가정에서만 벌어지는 비극이 아니다. 뉴스 보도를 보면 어린이집에서도 아동 학대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 왜래 전에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고 아동 학대 행위가 있으면 어린이집을 문닫게 하고 해당교사는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지만 그 약발이 약하다. 인간 말종들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인간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노부모 학대 만큼이나 자녀 학대 또한 중범죄이다. 친부모가 저지르는 것인데, 어린이집의 교사가 저지르는 것인데, 모든 아동학대는 말이 안 된다. 아동학대를 하는 인간들이 하는 인간들은 아예 인간이 아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이웃은 경찰에 즉시 신고할 일이다.

경제 한파 있어도 일자리 창출 성공해야

연초부터 전복 경제의 한파가 심각하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위기설이 들리고 있는 까닭이다. 그같은 소식은 지난해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의 폐쇄 사건을 생각나게 한다. 한국 지엠이 지난 연말부터 이달 22일까지 한달 간 잠정적으로 가동 중단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다가는 군산 경제가 절단이 날 것만 같다. SOC 예산이 대폭으로 줄어 도내 일자리 1851 개가 감소될 거라는 보도도 이어 군산 한국 지엠의 소식은 실상 가능성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전복도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자리 창출 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 상황이 어떻든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전복도가 지난날 경제 브레이크와 논의한 사안들은 중요한 것들이다. 도내 일자리 창출의 성적표가 좋지 않은 이때, 전복도는 그것을 상기해야 한다. 도내 젊은이들에게서는 아직도 불만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말과 반비례하여 괜찮은 일자리는 별로 없던 까닭이다.

전복도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침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여기 다시 말하거나 전복도가 말한 바 전복형 일자리 찾기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일자리 81만 창출 방침에 따라 다른 광역시도들도 자기 지역 쪽으로 많은 일자리를 가져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했다가는 서울을 비롯해 거주 인구가 많은 다른 광역시도들의 등쌀에 밀려 일자리를 제대로 붙잡지 못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원차 시도했으면 하는 것이다.

전복도는 일자리 창출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 본보는 도내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전복도는 올해 보다 더 분발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거듭 말하거나 전복도는 취지 자리 구하기에 목마른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이같은 말은 우리 지역 일자리의 수준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문도 된다. 도내 젊은이들 상당수가 이 지역을 떠나 살고 싶다는 오늘날이다. 전복도는 반드시 일자리 창출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독자제언

사이버범죄 예방 위한 개인정보 보호 예방이 최선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최근 신종 보이스피싱은 불특정인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용, 유출되어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경제적인 재산에도 피해를 줘 막대한 손해와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사이버 금융범죄 검거율은 60.8%로 전체 사이버 범죄 검거율 83.5%로 훨씬 작다. 전자금융사기는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피해 예방이 우선 중요하다.

이를위해 사이버범죄에 근본이 되는

개인정보 피해 예방 5가지 수칙을 통해 사이버범죄를 막아보자.

첫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꼼꼼히 살펴기, 둘째 비밀번호 문자와 숫자 8자리 이상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셋째 회원가입은 주민번호 대신 I-PIN사용, 명의도용확인서비스 가입정보 확인하기, 넷째 P2P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저장 자제하기, 다섯째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 금지하기 등이다.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http://privacy.kisa.or.kr)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사이버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진만 무주경찰서 수사과장

독자제언

겨울철 눈길 교통사고 예방 수칙

겨울철 눈으로 국도와 일반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된다. 눈길 사고는 사고 차량 이동이 쉽지 않고 사고 현장 주변은 2차사고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눈길 교통사고 예방책을 알고 미리 준비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눈길 교통사고의 가장 좋은 예방책은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겨울철 교통대란은 대부분 출퇴근길에 발생한다.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가급적 차량운전을 자제하고 여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편하다.

둘째 월동장비를 철저히 준비해야한다. 타이어 마모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겨울철 차량 월동장구인 스노우 타이 어와 체인, 모래, 삼각대 등을 준비해

야 한다.

셋째 안전한 운전습관을 기르자. 빙판길은 일반 도로보다 미끄럽기 때문에 반드시 서행과 감속운전,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출발은 부드럽게 하고 브레이크는 가볍게 여러번 나누어 밟는 것이 좋으며 눈길에 미끄러지면 같은 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며 눈이 쉽게 녹지 않는 커브길이나 응달진 곳은 더욱 주의해야한다.

넷째 폭설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다. 해당 공무원들은 겨울철 민감한 날씨에 관심을 갖고 폭설시 적절한 교통통제와 신속한 제설작업이 되도록 해 눈길 교통사고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겨울철 눈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하여 피해 없는 안전한 겨울철 운행이 되길 바란다.

신서윤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복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